

2015년 4월 18일 [국가직 9급 공무원] 한국사 사책형

2015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사 사책형 해설을 공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황의방 -

1.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천민 출신인 이의민이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 ② 외계 노비가 재산을 늘려, 그 처자가 양인과 유사해 질 수 있었다.
- ③ 지방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 ④ 향·부곡·소의 백성도 일반 군현민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공납·역을 부담하였다.

답4>

참고> **황의방 한국사** 126쪽, 고려의 사회

해설> ④ 고려시대 일반 군, 현에 거주한 주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농업), 소(수공업)에 거주한 주민은 양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CHECK>

- ① 천민 출신의 이의민은 이의방의 측근 장수였으며 경대승 사후 정권을 잡았고, 최충헌에게 피살되었다.
- ② 고려시대 외계노비는 외형상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향유하였다.
- ③ 고려 향리는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하였던 향촌의 실질적 지배세력이었다.

2. 조선전기(15~16세기) 사람의 향촌을 주도하기 위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덕과 의례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였다.
- ② 향사례, 향음주례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③ 향회를 통해서 자신의 결속을 다지고 향촌을 교화하였다.
- ④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많이 세웠다.

답4>

참고> **황의방 한국사** 260~261쪽, 사람의 향촌 지배

해설> ④ 조선 후기 구향들은 향촌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여 지배력을 다졌다. 또한, 족적 결함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나가고자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을 형성하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 등을 많이 건립하였다.

CHECK> ①②③ 조선전기 사람들은 소학 보급에 힘썼으며, 향사례 및 향음주례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또한, 자율적 규약(향약)을 만들고,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백성을 교화하며, 고을의 풍속을 바로 잡았다.

3. 과전법과 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신전, 출양전을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 ② 공음전을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주어 세습을 허용하였다.
- ③ 세조대에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성종대에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전주의 직접 수조를 지양하였다.

답2>

참고> **황의방 한국사** 243~245쪽, 토지제도의 변화

해설> ② 고려 문종 때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시과의 하나로 자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을 완비하였다(1049).

CHECK>

- ① 과전법은 사후반환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신전, 출양전, 공신전 등은 세습이 가능하였다(1391).
- ③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조 때 시행하였다(1466).
- ④ 성종 때에는 관청에서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어 다시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인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1470).

4. 다음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연표이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제우의 동학창시	삼례집회 (교조신원운동)	고부관아 습격	전주성 점령	우금치 전투	
↓	↓	↓	↓	↓	
	(가)	(나)	(다)	(라)	

① (가) - 황토현 전투
 ② (나) - 청일전쟁의 발발
 ③ (다) - 남·북접군의 논산집결
 ④ (라)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답4>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94~398쪽,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해설> 동학의 창시(1860), 삼례집회(1892.11), 고부관아습격(1894.1), 전주성점령(1894.4), 우금치전투(1894.11)

CHECK>

- ① 황토현 전투(1894.4) - (다)
 ③ 남·북접군의 논산집결(1894.11) - (라)

② 청일전쟁의 발발(1894.6.23.) - (라)
 ④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1894.6.21) - (라)

5.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라 지증왕 3년의 순장 금지 사료	· 신라 무덤에서 출토한 순장 대용 흙인형
-----------------------	-------------------------

- ① 전쟁 노비의 소멸로 순장할 대상이 없어졌다.
 ③ 죽음에 대한 의식에 도교사상이 반영되었다.

② 농업 생산력의 상승에 따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④ 왕실은 귀족층의 사치와 허례의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답2>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8쪽, 고대의 경제**

해설> 지증왕은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순장을 금지하였고(502), 철제농기구를 활발하게 보급하여 우경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농업생산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6. 밑줄 친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u>시대</u> 의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편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등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①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 재산 제도가 등장하였다.
 ③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 의식 장소 등도 확인되었다.

② 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의례 목적으로 환호(도랑)를 두르기도 하였다.
 ④ 왕실은 귀족층의 사치와 허례의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답3>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3~15쪽, 신석기 시대의 생활**

해설> ③ 흑요석은 산이 분화할 때 생성되는 유리질이 많은 암석으로 석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신석기인들이 흑요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CHECK>

- ①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는 청동기 시대 이후이다.
 ② 목적과 환호는 청동기 시대 이후 외침으로부터 취락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방어시설이다.
 ④ 청동기 시대에는 주거용 외에 창고, 공동 작업장, 집회소, 공공장소 등도 만들어졌다.

7. 조선 전기(15~17세기)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었다.
 ② 삼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 사화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환국정치가 시작되었다.
 ④ 합리적인 인사 행정 제도가 갖추어져 이전 시기보다 관료제적 성격이 강해졌다.

답3>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223~229쪽, 조선전기의 정치**

해설> ③ 사화는 조선 전기 훈구와 사림의 대립·갈등이었고, 환국은 조선 후기 숙종 대에 나타난다.

CHECK>

- ① 봉당정치는 복수의 봉당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것으로 봉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②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으로 서경·간쟁·봉박권을 행사하였으며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조선 전기의 정치체제는 관료제적 성향이 강하였다.

8.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하여, (현 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利害)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건국) 초창이었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 ①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② 5도양계의 지방제도를 확립하였다.
- ③ 지방 교육을 위해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④ 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장려하였다.

답3>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21~123쪽, 고려 성종의 정치**

해설> 자료는 고려시대 최승로가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28조이며 성종은 이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CHECK>

- ① 고려 인종 때 요청과 정치상 등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 ② 고려 현종 때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도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1018).
- ③ 고려 성종 때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유교 교육을 진흥시켰다(987).
- ④ 고려 성종은 과도한 국가 재정을 막기 위해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불교행사를 폐지하였다.

9. 신라 승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며,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은(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 ① ㉠은 미륵신앙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 ② ㉠은 무애가 라는 노래를 유포하며 일반 백성을 교화하였다.
- ③ ㉡은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을 화엄 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 ④ ㉡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답1>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97~98쪽, 원효와 의상의 활동

해설>

㉠ 원효. 원효는 불교의 사상적 이해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화쟁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불교의 분파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심문화쟁론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㉔ 의상. 의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一即多 多即一)가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고, 화엄일승법계도를 남겼으며, 부석사 등 많은 사원을 건립하였다. 또한,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 자하는 관음 신앙을 설파하여 불교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렸다.

CHECK> ①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아미타 신앙(정토종)을 전도하였다.

1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의 형태로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 독립의군부와 ㉡ 대한광복회는 모두 이러한 비밀 결사 단체였다.

- ① ㉠은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 ② ㉡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되었다.
- ③ ㉠과 ㉡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 ④ ㉠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은 임병찬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

답3>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71~472쪽, 민족의 독립활동

해설>

㉠ 독립의군부(1912)는 유생 의병장 출신의 임병찬이 전제 군주제를 복구하자는 복辟주의(復辟主義)를 추구하여 조직하였는데, 3·1운동 이후 복辟주의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㉔ 대한광복회(1915)는 채기중의 대한광복단을 개편하여 박상진이 군대식으로 비밀리에 조직하였다.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는 김좌진이 가입하는 등 점차 확산되어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한다.

CHECK>

- ① ㉠ 독립의군부는 북벌주의였다.
- ②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으로 ㉠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을, ㉡ 대한광복회는 박삼진을 중심으로 조직하였다.

11. 통일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문왕 대에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 ② 주에는 지방 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배치되었다.
- ③ 5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도독이 행정을 관할토록 하였다.
- ④ 촌주가 관할하는 촌 이외에, 향·부곡이라는 행정 구역도 있었다.

답3>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69~70쪽, 통일신라의 행정조직**

해설> ③ 9주는 장관인 군주(총관, 도독)가 지배하였고, 5소경은 사신이 관할하였다.

12. 고려의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민 자체의 과거를 위한 기금으로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 ② 개간지에는 일정 기간 면세하여 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었다.
- ③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세금을 감면해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다.
- ④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하였다.

답1>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57~159쪽, 고려시대 농민의 생활**

해설> 고려는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였다.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고리대의 이자를 제한하였으며, 의창제를 실시하는 등 농민 안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CHECK> ① 고려시대 광학보는 불법(佛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치한 장학재단이었으며, 고려 태조는 관리 양성과 유학 교육을 위하여 개경과 서경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장학재단인 학보를 설치하는 등 교육을 장려하였다.

13.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익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 ... (중략) ... 그리하여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비변사등록-

- ① 강경, 원산 등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 ②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거래하였다.
- ③ 객주나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 ④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삼한통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유통하였다.

답4>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22쪽, 조선 후기 포구상업**

해설>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종래의 포구는 세곡이나 소작료를 운송하는 기지의 역할을 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강경포, 원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CHECK> ④ 고려 전기 숙종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동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4. 다음 중 ‘대한국국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 ①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 ②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 ③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 ④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의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답4>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12쪽, 대한국국제**

해설> ④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國制) 중 9조

CHECK> ①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중 4조, ② 갑오개혁의 흥범 14조 중 7조, ③ 독립협회의 헌의 6조 중 5조

15. 연표의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 6·25 전쟁 발발 (1950. 6. 25) ↑ 서울수복 (1950. 9. 28) ↑ 휴전협정 체결 (1953. 7. 27)	① (가)-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② (가)-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③ (나)-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④ (나)-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
--	--

답1>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553~555쪽, 한국전쟁의 경과**

해설> ①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1950.9.15). - (가)

CHECK>

② 중국군의 참전(1950.10.25)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 (나)

③ 애치슨 선언(1950.1)이 발표되었다. - (가) 이전

④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1950.7). - (가)

16.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	· 일제에 의한 군대해산
---------------	---------------

ㄱ.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ㄴ.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ㄷ. 장지연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발표하였다. ㄹ.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 의병 부대(창의군)가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였다.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2>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44~445쪽, 국권피탈과정**

해설> 일본은 헤이그 특사파견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켰고 정미조약(한일신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정미 7조약에 대한 민족 항일 운동이 거세지자 통감 이토는 순종황제를 협박하여 군대마저 해산(1907.8)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CHECK>

ㄱ. 간도와 연해주에서 의병으로 활약하던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 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1909).

ㄴ. 민영환은 외교권 상실에 울분을 금치 못하여 자결로써 을사늑약에 항거하였다(1905).

ㄷ. 을사늑약 직후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격렬한 항일 언론을 펴 을사늑약을 규탄하고 민족적 항쟁을 호소하였다(1905).

ㄹ. 이인영과 허위가 지휘하는 의병 연합 부대는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여 서울 근교까지 진격하였다(1908.1).

17.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가집성은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
- ② 농사직설은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 ③ 산림경제는 박세당이 과수, 축산 등을 소개한 것이다.
- ④ 과농소초는 홍만선이 화초재배법에 대해 저술한 것이다.

답2>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250쪽, 농서의 편찬**

해설> ②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정초 등이 편찬하였다.

CHECK>

①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원)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다.

③ 조선후기 홍만선은 산림경제를 저술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④ 박지원은 과농소초, 한민명전의 등을 저술하여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다음의 기록이 보이는 왕대의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 ① 특정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 추세가 대두되었다.
- ②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였다.
- ③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 ④ 봉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탕평정국을 운영하였다.

답4>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00~301쪽, 영조의 개혁정치**

해설> ④ 자료는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이다. 영조는 자신의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완론탕평).

CHECK>

- ① 숙종 때 환국으로 인하여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변질되어 갔다.
- ② 현종 때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어 두 차례의 예송논쟁이 발생하였다.
- ③ 세도정치 시기에는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9. 밑줄 친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아! 우리는 본시 모두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醫)에 들어가고 혹은 역(驛)에 들어가 7, 8 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 (중략) … 문장과 덕은 비록 사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명공 거실 외에 우리보다 나은 자는 없다.

- ① 집단으로 상소하여 청요직에 허통을 요구하였다.
- ②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펼쳤다.
- ③ 관권과 결탁하고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
- ④ 유향소를 복립하여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 하였다.

답1>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237~238쪽, 중인의 활동**

해설> ① 자료에 나타난 계층은 중인을 말한다. 조선 후기 중인들은 대규모의 소청 운동도 벌이면서 점차 전문직으로서 중요 역할을 부각시켰으나 정부의 거부로 신분 상승 운동은 실패하였다.

CHECK>

- ② 일제강점기 백정들은 진주에서 이학찬을 중심으로 조선형평사를 창립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1923).
- ③ 조선 후기 경제력을 갖춘 신향들은 관권과 결탁하여 향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였다.
- ④ 조선전기 성종 때 사람들은 유향소 복립운동(1488)을 통하여 유향소를 부활시켰다.

20. (가)~(라)는 광복을 전후해 일어난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다)

(라)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 ①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 ②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 ③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④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가 결의되었다.

답3>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542~547쪽, 광복 이후의 정세**

해설>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1941), (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1945.10), (라)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1948.7).

CHECK> ① 좌우합작 7원칙 발표(1946.10), ②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 함(1948.2), ③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1945.8), ④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 결의(1947.11)